

광택소재의 변화에 대한 연구 -20세기 이후-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백 천 의*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광택소재의 정의
2. 트렌드에 나타난 광택소재
- III. 광택소재의 제조와 변화

1. 광택소재의 제조

2. 광택소재의 변화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90년대 이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광택소재는 60년대 미래파 패션의 소재가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이스 룩과 같은 우주시대를 테마로 한 패션에서 메탈릭 소재는 미래라는 특수한 이미지를 클로즈업시키는데 효과적이다¹⁾.

메탈릭 소재는 차가운 느낌의 모던한 인상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재로 여성이 남성적인 옷을 입으면 여성 특유의 연약함이 두드러져 보여 묘한 매력을 발산하며, 금속 광택이 주는 차가운 느낌은 그것을 입은 여성의 연약함을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섹시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²⁾ 이처럼 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현 시대에, 디자이너는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착용자는 소재가 주는 매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광택소재를 즐겨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같은 광택소재는 고대로부터 상류층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장식을 하기위한

1) 이은영 · 유순례 · 백천의. 패션. 교학연구사, 1999.

2) 김종복. Fashion Sense Search. 도서출판 시대, 1997.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이집트 시대 파라오들은 골드 메탈릭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라메 직물은 고대 페르시아와 앗시리아 시대부터 직물의 장식용 실로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는 중세의 암흑 속에서도 실크로드를 통하여 동방으로부터 수입된 화려한 브로케이드 실크와 금사, 은사로 수놓은 자수, 보석 등으로 장식된 화려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3) 이재창 편저, 패션디자이너 199 -Paco Rabanne-, 도서출판 정은도서, 1995.

20세기에 와서는, 1964년 파코라반은 알루미늄, 강철, 쇠와 같은 금속류를 사용해서 만든 의상을 최초로 등장시켰는데, 그는 디자이너가 금속으로 옷을 제작하는 것이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며, 메탈이야말로 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최상의 재료라고 하였다.³⁾ 64년 앙드레 그레쥬는 사각모자에 흑백으로 강조한 직선적인 옷을 「우주여자」로 발표했고, 66년 베에르 가르텐은 헬기형의 모자와 알루미늄 백과 같은 은색의 광택 소재를 사용해 「코스모폴」로 명명된 우주복 스타일을 발표했다. 60년대 후반부터 티에르 뮈글러는 「별들의 전쟁」, 「2001년」 등 미래 공상과학영화의 의상을 디자인하였으며, 70년대 말에 상영된 「스타워즈」에서 티에르 뮈글러의 스페이스 룩은 광택소재의 진수를 가장 잘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4) 안선경 · 양숙희, 복식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Vol. 23, No.1, pp.147-158.

60년대 말 '촉감이 좋은(feel-good)' 의복으로 모든 계층이 선호하였던 벨벳은 직물 자체 기모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압축시킨 소재로, 벨벳을 착용한 신체의 굴곡은 빛의 반사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을 갖게 하였다.⁴⁾

1988년 이후 신소재의 본격적인 개발에 힘입어 90년대 들어와 광택소재는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기능성을 살린 하이테크 감각을 갖춘 고기능 광택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변형단면 소재의 금속성 광택, 알루미늄 spattering과 같은 표면 코팅가공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한 뉴 에이지(new age) 패션은 메탈, 스팩스, 비닐가공 소재 등을 사용하여 우주의 신비한 아름다움과 힘을 표현함으로써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더 중요시하며 초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흰색과 실버 메탈릭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메탈릭 소재는 실버 메탈릭보다 골드 메탈릭 소재들이 선호되고 있으며, 우아하고 온화하며 자연스러운 광택을 주는 실켓·친즈가공 소재, 부드러운 표면의 새틴소재, 반투명의 광택감 있는 테크니컬 소재, 플라스틱 촉감의 실키가공 소재, 광택나는 표면과 매트한 이면의 이중직과 실리콘 코팅을 통한 paper touch 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수지 코팅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서술하였듯이, 광택소재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광택소재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한다. 연구 방법으로 각종 패션 정보지, 소재전시회, 디자이너 컬렉션과 인터넷 정보 등을 이용하였으며, 미학적 관점보다는 소재 관점에서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광택소재의 정의

5) 이은영외 2명, 패션, 교학 연구사, 1999.

20세기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택소재(luster material)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메탈릭 소재와 라메소재로 분류하고 있다.⁵⁾

메탈릭 소재는 금속적인 광택을 지닌 소재로 알루미늄 코팅, 비닐 코팅, 에나멜 코팅 등으로 직물표면에 광택을 부여한 소재와 변형단면에 의한 금속성 특유의 광택을 가지는 소재, spattering과 같은 금속 미립자를 표면처리한 하이테크 소재는 물론, 파코라반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최상의 재료라고 극찬한 알루미늄, 강철, 석와 같은 메탈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러한 메탈릭 소재들은 금속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광택이 있는가 하면 비닐과 같은 wet한 느낌을 주는 광택도 있다. 비닐코팅 소재나 라텍스 등은 후자로서 다른 어떤 소재보다도 육감적이며, 뇌쇄적인 성적 매력을 발산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라메는 금·은사와 같은 금속사를 이용하여 짜여진 직물을 일컫는 말로서, 이러한 금속사는 고대 페르시아와 아시리아 시대부터 직물 장식용의 실로 이용되어 왔던 의류소재이다. 20세기 합성섬유 시대가 도래하기전까지 광택소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라메란 금속의 절박(금박, 은박)과 금·은사의 총칭으로, 절박은 평박이라고도 하며 금은박을 옷칠로 얇은 종이에 붙인 것을 가는 조각으로 자른다는지 알루미늄을 진공·증착한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그대로 가는 조각으로 잘라서 절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금·은사는 고대에는 주로 심으로 견사를 쓰고 그 표면에 금박 또는 은박을 입힌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테이프상의 알루미늄박에 플라스틱 필름을 입혀 안료로 색을 입힌다. 금·은박사의 용도는 주로 장식효과를 위해 사용되는데, 일명 반짝이 옷이 그것으로, 무대의상이나 환상적인 감각의 옷, 전위적인 옷에 사용된다. 우아하고 화려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브로케이드 직물이 대표적인 라메라고 할 수 있다.

2. 트렌드에 나타난 광택소재

6) 김종복, Fashion Sense Search, 도서출판 시대, 1997.

20세기 이전에는 권위와 장식을 위해, 20세기 이후에는 전위적이고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택소재는 많은 패션 트렌드 룩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⁶⁾ 대표적인 이미지 룩은 다음과 같다.

가) 하이테크 감각

하이테크 감각은 모던에서 파생된 일종의 미래지향적인 감각으로 첨단과학 냄새를 풍기는 이미지를 지녔다. 원시적이거나 자연적인 것과는 반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인공적인 면모가 그 특징이다. 하이테크 디자인은 모던계열이기 때문에 도식적이고 구축적인 면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소재 자체에서 하이테크 패션의 최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빛을 발산하는 광택소재, 나일론, 인공피혁, 알루미늄, 금속 등을 많이 쓰는데, 하이테크 패션이 이처럼 메탈릭소재를 많이 쓰는 이유는 다른 자연소재에 비해 미래지

향적이며 첨단과학이 빚어낸 산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이테크 패션은 메탈릭 소재와 지오메트릭한 라인 그리고 미래적 감각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퓨처리스트 룩

퓨처리스트 룩은 미래의 우주공간에서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메카니즘적인 요소가 강한 패션이다. 전위성이란 의미에서 보면 펑크 스타일과 비슷하지만 멋을 소화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단지 외형적인 면만 본다면 60년대에 잠시 유행했던 앙드레 크레주의 스페이스 룩과 펑크 스타일의 복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퓨처리스트 타입은 첨단적이며 지극히 환상적인 것으로 쉽게 말하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입는 의상이 퓨처리스트 룩이다. [서기 2001년], [별들의 전쟁]과 같은 광대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로 인하여 퓨처리스트는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스타일이 되어 있다. 60년대 유행했던 모습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와 헬멧, 번쩍거리는 팬티스타킹과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흰색 부츠가 주류를 이룬다. 퓨처리스트룩은 소재와 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몸에 착 달라붙는 바디웨어와 같은 타입으로 신축성 소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티에르 뮌글러가 대표적인 기수이다. 다른 하나는 로보트 타입으로 우주복과 같이 활동성보다 몸을 보호한다는 느낌이 더 강한 옷으로 이러한 종류의 옷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속의 색상을 지닌다.

다) 스페이스 룩

미래 시대를 우리는 「우주시대」라고 하는데, 지상이 아닌 우주공간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스페이스 룩이라고 한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인류사상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이래 우주시대를 상징하는 우주복의 이미지는 패션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64년 앙드레 크레주는 사각 브림의 모자에 흑백으로 강조한 직선적인 옷을 「우주여자」로 발표했고 1966년 삐에르 가르탱은 헬기형의 모자와 알미늄 백과 같은 은색의 광택소재를 사용해 「코스모폴」로 명명된 우주복 스타일을 발표했다. 이러한 스타일은 스페이스룩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 이후 금속적인 소재를 사용한 의상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되어 우주탐험과 함께 우주복시대의 개막을 열었다.

라) 메탈릭 룩

메탈릭룩은 금속적인 광택을 지닌 소재로 만든 옷이라는 뜻이다. 알루미늄 코팅 비닐 코팅, 에나멜 코팅, 테크니컬한 금속터치의 소재를 써서 만들어지는데 미래를 테마로 한 패션에 메탈릭한 터치의 소재는 미래라는 특수한 이미지를 클로즈 업 시키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그리하여 60년대 후반 우주복 스타일로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 글리터 룩

메탈릭이 금속적인 광택을 발산한다면 글리터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광택으로 라메가 들어있는 옷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글리터 룩이 처음 발표된 60년대 중반에는 연예인의 무대의상으로 주로 입혀졌으나 지금은 하이테크 감각을 내세우

는 타운 웨어에 널리 이런 소재가 쓰여지고 있다.

Ⅲ. 광택소재의 제조와 변화

1. 광택소재의 제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류소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광택을 발산시킨다. 견은 매우 광택이 있는 반면 면직물이나 모직물은 광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캐시미어, 알파카, 모헤어와 같은 수모섬유들은 자연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레이온이나 아세테이트, 나일론과 같은 인조섬유들은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광택을 가진다. 수지 코팅 처리된 비닐소재, 합성피혁, 천연피혁, 기타 수지 등도 광택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물이나 니트의 제조 과정에서 실에 메탈사, 금속사, 광택사(인조 광택사) 등을 사용했을 때 광택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작할 때 섬유조직에 따라 새틴, 샤뮤즈, 도우스킨, 비니션, 크레이프 백 새틴 등과 같이 주자적으로 짜면 광택있는 소재를 얻을 수 있다. 벨벳과 같이 기모의 곁에 따라 반사광이 달라짐으로써 광택이 생기는 소재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직물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광택으로 대부분 은은하며 우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광택을 부여하는 방법은 후 처리 공정에서 실시되는 가공에 의해서 행해진다. 새로운 합성섬유의 증가는 가공처리의 중요성을 높여주는데 이러한 가공제품들은 아주 섬세하게 매끈한 표면, 고풍택 효과를 주며 빛을 반사한다든지 holographic한 표면을 갖도록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최신 합성섬유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코팅과 라미네이트이다. 테크니컬 코팅은 아주 미세한 필름 코팅에서부터 아주 두꺼운 코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류소재에 적용되어 있다⁷⁾.

7) Sarah E. Braddock, Marie O'mahony, Techno Textile, Italy, 1998.

빛의 반사, 펄 광택, 락카, 플라스틱 등의 느낌을 부여해 준다. 이와 같은 코팅기술은 PU, PVC와 같은 플라스틱 필름을 아주 얇게 처리하여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그림 1은 'spattering' 이라 불리는 진공 코팅 방법으로 아주 미세한 금속입자를 섬유 표면에 처리하여 스페이스 룩을 보이고 있으며⁸⁾, 그림 2는 메탈릭 가공처리를 한 베스트가 하이 테크 패션을 연출해 주고 있다⁹⁾.

8) Alexander MaQueen. Stainless steel splattered Synthetic, '99 S/S collection.
9) Mark Eisen, Metallic vest, '96 S/S collection.

이처럼 최근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테크니컬 광택소재들은 대부분 가공에 의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는데 천의 표면에 실시되고 있는 가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켓가공은 긴장상태에서 면직물을 농도가 진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침지하면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광택이 증가하면서 흡습성, 염색성, 강도 등이 향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켓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면의 natural한 성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캘린더가공은 캘린더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모든 가공을 의미하며, 광택과 함께 다림질 효과를 주며 표면에 수지(필름)를 처리하는 친즈, 글레이즈, 폴리시드 캘린더링 등

이 있으며, 파라핀 코팅을 함께하여 고풍택 친즈 제품을 얻을 수도 있다. 직물 표면에 광택을 부여하는 가공으로 주로 면직물에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광택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에 맞추어 캄브릭과 같은 아마직물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1)



(2)

그림 1) Alexander McQueen, Stainless steel splattered synthetic, '96 S/S Collection.
그림 2) Mark Eisen, Metallic Vest, '96 S/S Collection.

슈라이너 가공은 면직물에 견과 같은 광택과 촉감을 부여해주는 가공으로 실들이 납작해지며 부드럽고 조밀한 외관을 갖게 된다. 면포와 란제리용으로 사용되는 트리코트 소재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코팅가공은 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거나 특수한 외관을 주기 위해 용도에 맞는 도료를 기초포에 고정시키는 가공을 말하며, 최근 많이 실시되는 테크니컬한 광택을 주는 펄코팅, 각종 수지 코팅(실리콘 코팅, 에나멜 코팅, 락카 코팅), 라미네이트, spattering 등이 있다. 불규칙한 주름을 형성시키는 크링클 직물도 섬유 열가소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수지처리 하여 형체를 고정시킨 경우가 많으며, non woven 느낌에 종이처럼 얇고 바삭바삭한 촉감과 매트한 느낌의 페이퍼 룩을 형성하는 소재들도 코팅수지를 이용하여 dry한 종이 느낌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최근 광택소재의 경향은 우아하고 온화하며, 자연스러운 광택을 수반하는 소재와 새틴, 실켓 가공, 친즈 가공, 코팅 가공, 메탈릭 안을 이용한 광택 소재군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10) 삼성패션 연구소
 (http://www.sfi.co.kr)
 이태아 서울 소재전시회
 2000 S/S 소재 트렌드 '00
 S/S Premiere Vision 원
 단전시전.

표1) 2000 S/S 트렌드에 나타난 광택소재¹⁰⁾

광택 소재의 특성
· 우아하고 온화하며 자연스러운 광택감을 수반하는 소재군
· 빛에따라 색상이 변하는 CHAMBRAY & IRREDESCENT효과
· 은은한 광택감과 매끄러운 표면의 새틴소재
· 반투명의 광택감 있는 테크니컬 소재군
· 메탈릭 양의 활용에 의한 광택 효과
· 양에 의해, 가공에 의해 나타나는 매끄러운 표면감
· 자연스러운 주름가공 처리위의 코팅 소재군
· 100% 합성소재의 인위적인 광택감
· 플라스틱 촉감의 실키가공 소재군
· 실리콘 코팅의 새틴 오르간자 조직
· 평면구조의 실버 메탈릭 보일 조직
· 세련되고 모던한 감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면효과와 실크 또는 혼방
· 밝고 형광적인 색상을 적용한 ONE PON나 ALL OVER패턴의 사용 낙서, 글자 모양, 플로랄 패턴등 다양
· 메탈릭 양을 활용하여 광택감을 부여
· 고무 코팅이나 플로킹 처리에 의한 다양한 패턴의 표현
· 캐주얼 감성과 모던함, 패션성,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벼운 코팅 소재군
· 젖은 듯한 촉감의 반 투명한 고무 코팅
· 매끄럽고 광택나는 왁스코팅이나 에나멜 코팅의 나열법
· 광택나는 표면과 매트한 뒷면의 이중직 조직감
· 코팅을 통한 광택과 무광택의 다양한 표면 촉감을 갖는 소재를 일반적 캐주얼 웨어에 응용하는 것이 트렌디
· Waxed Paper Effect & Pearl Coating
· Plastic Coating
· Wax Coating
· Enamel Coating
· Metallic Yarn
· 실리콘 코팅한 Paper Touch의 Cotton
· 얇은 코팅/광택가공 - Mercerzed & Chinz Finishing
- Silicon & Resin Coating

2. 광택소재의 변화

1) 60년대 이전

20세기 인류사는 모든 분야에서 큰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복식사적인 면에서도 현대복식의 형태가 정착된 중요한 시기이다. 광택소재는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실크를 이용하여 새틴, 모아레, 브로케이드, 벨벳, 페일, 타프타, 다마스크 등이 사용되었으며, 실크 외에 다른 소재는 엠파이어 스타일이 유행하던 19세기 초에는 머슬린 드레스에 캐시미어 솔이 유행하였고, 1820년경에 모헤어 오토만이 새틴 트리밍 장식과 함께 사용되었다.¹²⁾

12) <http://www.kent.edu/museum>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이 개발된 인조섬유는 권위와 장식의 상징으로 이용되었던 광택소재를 전위성이나 우주시대나 사이버 시대와 같은 미래테마의 소재로 등장시켰다. 1938년 나일론의 개발과 함께 열린 합성섬유 시대가 도래하기전까지 사용되었던 광택소재는 브로케이드, 새틴, 샤뮤즈, 벨벳, 타프타, 다마스크와 같은 실크섬유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20세기 초 여성복의 라인이 단순해진 아르데코 시대는 블랙의 실크 타프타를 아이보리 실크 새틴과 함께 많이 이용하였다. 그림 3은 1902년경의 리셉션 드레스로 블랙실크에 블랙 타프타로 라이닝처리한 툴 드레스로 세퀸과 아이보리 새틴을 이용하여 장식효과를 나타내었다.



1910년대는 거즈와 샤뮤즈의 조화를 이루며 샤뮤즈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그 밖에 실크 새틴, 움프레 실크, 라메 등 광택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로 아직까지는 실크직물이 많이 이용되었고, 이 시기 모피의 유행에 힘입어 벨벳사용이 두드러졌다. 의상 전체를 벨벳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트리밍 장식으로도 많이 이용되었다. 벨벳은 기모의 방향에 따라 광택의 반사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화려한 스타일에서 단순한 디자인의 의상에 광택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지루함을 보완하여 화려함을 표현해 주었다

그림 3) Reception dress, England, 1902-1903.

20년대 들어와서도 벨벳의 사용은 여전하였으나 이브닝 드레스에는 쉬폰 소재에 비드, 진주를 많이 장식하여 쉬폰의 무광을 보완해 주며 화려함을 표현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소재의 사용에서는 소재 자체에 광택이 있을 때는 트리밍 장식이 단순했지만 쉬폰과 같이 강연사를 사용하여 광택이 없는 경우는 비드나 세퀸, 진주 등을 장식하여 화려함을 보완해 주고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최근 90년대 후반에 유행되었던 와사가공 소재와 같은 크링클이 쉬폰에 적용되었다. 그 밖에 실크 페일에 금박사를 이용한 브로케이드가 벨벳과 함께 사용되었다. 특히 20년대말부터는 권위나 장식의 표현으로 gold metallic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silver metallic 소재의 사용도 점차 눈에 띈다.



그림 4는 크림색의 실크 거즈와 실크 샤뮤즈 드레스로 19세기부터 드레스의 소재는 샤뮤즈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그림 4) Wedding dress and shoes, Oak Park, Illinois, United States of America, 1910.

1938년 나일론 발명 이후 40년대 말까지 다양한 합성소재의 개발로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실험적인 의상을 선보였다. 지금까지의 소재광택은 권위의 상징이라든지 화려함을 표현하는 장식적인 효과로 이용되었던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룩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전형적인 소재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 뽀에르 가르텐은 비닐소재를 처음으로 의복에 이용했으며, 파코라반은 금속을 직접 하나의 오브제로 도입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로 의복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 5는 20년대 데이 드레스로 벨벳을 이용한 번아웃 소재를 이용하여 우아한 광택을 얻었으며, 그림 6은 40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엘로우의 실크 타프타소재를 이용하였다. 그림 7은 크리스찬 디올이 1949년 세퀸, 모조 다이아몬드, 구슬, 크리스탈 등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그림 8은 50년대 이브닝 드레스로 골드 라메 바디스에 브라운의 거즈를 이용하여 벨트를 하였다.



(5)

(6)

(7)

(8)

그림 5) Day dress, early 1920s.

그림 6) Cocktail dress attributed to Gilbert Adrian, 1940.

그림 7) Evening dress by Christian Dior, France, 1949.

그림 8) Evening dress by Alix Gres, France, 1950.

2) 60-80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60년대 우주시대의 개막, 테크놀로지 복식에서도 로보스틱 웨어라는 메탈소재를 이용하여 바늘로 꿰매는 대신 용접하여 만들어진 복식을 입히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60년대는 기성의 가치가 허물어지고 젊음이 약동한 시대로 미래의 이미지가 붐을 일으키고 상품화되 시기였다. 미소의 우주탐험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을 현실로 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 앙드레 쿠레쥬, 삐에르 가르맹, 파코라반 등은 미래의 이미지를 그들의 작품속에 표현하여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의 미래주의적 경향은 절묘한 재단방식에 의한 비대칭적인 구조나 기하학적인 입체를 만들어내는 기묘한 디자인에 의한 의복 구성방법에서 잘 나타나 있다.

12) 김창준,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 라사라(주), 1992, pp. 110-115

삐에르 가르맹은 1966년 미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계획이 발표된 시기와 때를 맞추어 비닐을 이용한 코스모 콜룩을¹²⁾ 발표하고, 1967년에 발표된 '코스모 콜(cosmocorps)'에서 검정색 에나멜 부츠와 모자에 금속성 장식을 부착하여 다분히 첨단과학과 맞물려 미래지향형을 제시하고 있다.

60년대는 골드 메탈릭 소재보다도 실버 메탈릭 소재들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또한 키네틱 아트의 운동감에 의한 영향으로 60년대에는 형광 염료로 염색된 옷감이나 비닐소재를 사용하여 빛나게 하여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다이아나 듀는 실제로 밧데리를 이용하여 열판에 빛이 들어가게 하여 광채를 내기도 했다. 의상의 색상에 형광색이 섞여 있으므로 강한 시각적인 자극을 주었으며,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Peacock Revolution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13) 오희성·박화순, 의상디자인, 경춘사, 1994, pp. 224-225.

앙드레 쿠레쥬의 New Body는 우주를 향한 의지의 표현으로 대담한 육체의 노출과 젊음의 역동감이 넘치는 미래지향적 패션을 시도하면서 비닐과 같은 투명한 소재, 은모 테이프, 금속재료 등의 '무탄력성'을 특징으로 한 소재를 사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단기술로 다야트를 제거하고 다림질로 열융착시켜 완성하는 형태를 취했다¹³⁾.

파코라반은 64년 알루미늄, 강철, 석와 같은 금속류를 사용해서 만든 의상을 최초로 등장시켰다. 그는 디자이너가 금속으로 옷을 제작하는 것이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며 메탈이야말로 이시대를 대변해 주는 최상의 재료라고 하였다. 메탈은 중세의 갑옷처럼 몸을 보호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금속으로 이어진 조각들 사이로 인체가 들어나 보이는 "매혹적인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샤넬이나 발렌시아가 등은 실크나 나일론, 벨벳과 같이 금속성 광택이 아닌 은은한 광택을 발산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그림 9, 10)



그림9) Cocktail suit by Gabrielle Chanel, France, 1960. Two-piece cocktail ensemble of iced lime ground with silver and turquoise brocaded trellis pattern.



그림10) Evening dress by Oscar de la Renta Yellow matelasse cotton, rhinestones and synthetic green metallic ribbons.

70년대 말에 나온 영화 “스타워즈”는 티에르 뮤글러의 스페이스 룩이 나타나는데, 광택소재 사용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60-70년대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형태로 이용된 강한 광택소재들과는 달리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크 샤뮤즈와 같은 은은한 광택소재가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1). 주로 실크를 이용한 실크 거즈, 실크 페일, 실크·레이온, 벨벳 등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장 폴 고틀리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은 가죽이나 합성피혁, 라텍스를 이용하여 전위적인 형태, 안티-패션에서 주로 슬릭 룩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림 11) Evening dress by Geoffrey Beene, United States of America, 1980.

3) 90년대 이후

90년대는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신소재의 개발에 따라 하이테크 소재들이 등장한다. 특히 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사이버 룩”은 신소재 개발과 맞물려 미래의 테크노 표현을 흥미롭게 해주었다.

극세사가 개발되어 천의 표면은 컴팩트하고, 알루미늄처럼 매끈한 표면으로 빛의 반사를 이용한 광택효과를 가져오는 소재들이 등장하였다. 이전까지의 광택소재들은 영화 의상, 무대 의상이나 실험적인 의상에 주로 이용되었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실제로 일상복의 소재로 등장한다. 기존의 금속성 광택보다는 부드러운 광택을 부여하는 수지 코팅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또한 바디 어필한 슬릭소재들이 많이 이용되어 미끈미끈한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인체에 밀착시켜 마치 나체로 착각할 만큼 육감적이고 요염함을 표현해주었다.

90년대 초기에는 메탈릭한 소재도 금속과 같은 광택감이 있는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에나멜 코팅, 락카 코팅, 단면변형을 이용한 차가운 광택, 경·위사의 실을 다른 색상으로 직조하여 빛의 반사각도에 따라 색상과 광택이 달라지는 소재 등이 많이 등장하였다.

표 2)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소재 경향 ('94년 이후)

	패션 트렌드	소재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테크놀로지 구현을 위한 과감한 디자인의 사용. · 신소재와 강렬한 색상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한 소재. · 메탈릭한 소재 · 레이스 · 트리코트 소재 · 비치는 소재 · 스트레치 소재 · 광택소재 · 매트한 실버코팅 · 코팅직물, 플라스틱 · 비치는 소재 · 스트레치 소재 · 하이테크하고 보호적인 합섬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면성이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되어 패션에서도 나타남 · 다양한 요소의 과감한 믹스, 복고풍과 미래지향적 요소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택소재, 라메, 새틴, 비닐소재, 스트레치, 에나멜 코팅, 메탈릭 가공 · 가죽과 실크, 고무와 쉬폰 · 오팔가공 저지, 광택있는 메탈릭 직조 · 매트한 실버코팅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얼 감각의 60년대 이미지로 트렌스한 요소의 믹스 매치 · 미래적 보호와 기능성을 강조한 스포티함과 즐거운 미래의 이미지로 유머러스한 만화적 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치 소재 조직소재(그로 글랑, 와플, 허니콤 등) · 광택을 억제한 소재(실리콘 코팅, 라미네이트 가공, 광택감을 없앤 새틴) · 펄 광택 · 저지, 가죽, 합성피혁 · 비주얼리티의 존재감(사이니와 매트 자연과 인공, 핸드 크레이프와 테크놀로지, 플레인과 팬시) · 입체적 코팅(가죽코팅, 비닐코팅, 나일론과 고무코팅, 니트와 광택코팅) · 사이니 터치, 그래픽과 옵티컬, 레트로와 퓨처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감이 풍부하고 기능성이 증시되며 단순하고 세련됨. · 캐릭터적인 모던함에 엘레강스가 접목된 표현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노풍 코팅, 컴팩트한 스트레치, 복합소재 · 은밀한 광택 · 스트레치와 sheer, · 광택과 sheer · 매트와 컴팩트 · 테크니컬과 내추럴 · 천연섬유와 코팅 · 리버시블 소재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면성과 스포츠 감각의 극치 · 미래적 실험주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면성과 스포츠 감각의 극치 · 미래적 실험주의 표현. · 혼재된 소재 · 기능성 소재 · 테크노 소재 · 합성소재에 코팅 · 소프트한 합섬의 니트 · 패턴물, 크링클소재, 레이스, 매쉬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의 hybrid · 꿈과 기능성, 가벼움과 성능, 공존과 파괴, 정서와 부가가치, 더 나은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마스크, 브로케이드 · 벨벳, 실크, 새틴 · 이중직, 니트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와 함께 엘레강스한 합섬의 부활 · 모든 종류의 광택사의 활용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섬유의 편평사, 분사, 단면 변형에 의한 광택 · copper & stainless 등의 real metal, metallic, plastic yarn의 확산 · 천연 소재의 효과를 위한 slub, nep, loop사와 같은 irregular yarn · smooth & sleek touch의 복귀 · silky한 광택감의 회귀 · fine yarn & satin에 의한 sleek한 광택감 · mat & metallic, metallic 가공 & 장식 · 컬러와 결합된 shot 광택 · 광택을 위한 모든 finishing

또한 프린터기술의 향상으로 형광프린터를 실시하여 빛의 조명도에 따라 색의 발현도를 달리 하는 소재들도 나타난다. 특히 디자인의 심플리티가 적용되면서 소재의 다양성은 실, 조직 또는 테크니컬한 특수가공을 실시함으로써 보완해 주었다.

90년대 중반부터 트렌드 경향에 보여지기 시작한 사이버 패션은 미래주의, 노출 표현, 양면성, 역전의 발상, 스포츠 감각, 테크노 감각 등에 인간적인 요소가 혼합된 양상으로 발전되었다.¹⁴⁾ 93년 컬렉션부터 사이버와 관련된 요소들이 보여지는데 플라스틱, 비닐, 실버 등의 금속성 원단 등 다채로운 신소재가 등장했다.¹⁵⁾ 이러한 경향들은 95년을 기점으로 많은 브랜드에서 여러 요소로 작용되었는데 고무와 쉬폰의 매치, 상쾌한 형광 빛이 섞인 파스텔 컬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활동성과 편안함이 강조됨에 따라 금속성과 에나멜 느낌의 광택컬러 등 메탈릭하면서 스포티브한 소재들이 두드러졌다.

그림 12는 홀로그래픽 가공을 처리한 모노필라멘트를 이용한 나일론소재로 투명함과 광택을 함께 지니기 때문에 사이버적이며, 테크니컬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는 미찌코 코시노의 비닐자켓으로 플라스틱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었으며, 그림 14는 오리털과 깃털을 패딩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혼방 자켓과 스트레치 crochet으로 만들어진 바디슈트이다. 모두 은은한 아이보리의 실버광택으로 클린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세련미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림 15는 파코 라반의 합성피혁의 스팅글을 연결하여 만든 의상이다.

이 시기에 보여졌던 핑크, 스페이스 룩, 미래주의, 테크노적 감각, 에로티시즘적 발상, 해체주의 등의 총합으로 소재의 언밸런스 믹스 매치와 메탈릭 소재들이 사용되었다. 표 2는 94년 이후 트렌드에 나타난 소재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각적이고 금속성의 광택소재들이 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실이나 조직에 의해 나오는 은은한 광택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택에서도 물론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실버 메탈릭 소재,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의 골드 메탈릭 소재의 사용하는 등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실버 메탈릭 소재에서 골드 메탈릭 소재로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14) 이은영 외2인, 우리나라 사이버 패션에 대한 연구-1994년 이후에 나타난 트렌드 중에서-,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11,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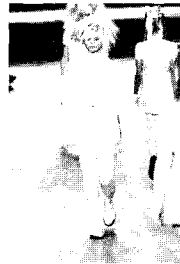
15) 조현미, 패션투데이, 1994, 11, pp 38-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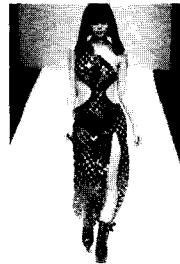
(12)



(13)



(14)



(15)

12) Issey Miyake, Holographic jacket and trousers. ('96 S/S)

13) Michiko Koshino, '96 S/S

14) Issey Miyake, "Crystal down", '96 F/W

15) Paco Rabanne, "Synthetic Leather spangle '95 F/W



(16)



(17)



(18)

16) Evening dress, Karl Lagerfeld for Chanel, Haute Couture, France, Spring 1996. Metallic silver lace over a peach chiffon ground. Hooks and eyes and snap closure with decorative rhinestone buttons.

17) Pierre Cardin, "Paper look", '00 S/S.(<http://www.firstview.com>)

18) Gianni Versace, "Silver Metallic coating", '00 S/S (<http://www.firstview.com>)

그림 16은 칼 라거펠드의 작품으로 실버 메탈릭 레이스에 보석 단추가 장식되어 있으며, 그림 17은 삐에르 가르망에 의해 발표된 바삭거리는 페이퍼 룩을, 그림 18은 베르사체가 발표한 실버 메탈릭 코팅을 한 원피스이다. 이와 같이 삐에르 가르망, 베르사체 등 많은 디자이너들은 여전히 컬렉션에서 빼놓지 않고 메탈릭 룩을 선보이고 있다.¹⁶⁾

16)<http://www.firstview.com>

표 2를 보면, 21세기에는 실버 메탈릭 소재보다 골드 메탈릭 소재들이 선호되고 있으며, 우아하고 온화하며 자연스러운 광택을 주는 실켓·친즈가공 소재, 부드러운 표면의 새틴소재, 반투명의 광택감 있는 테크니컬 소재, 플라스틱 촉감의 실키가공 소재, 광택나는 표면과 매트한 이면의 이중직과 실리콘 코팅을 통한 paper touch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수지 코팅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가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아주 관념적으로 우주시대에 맞는 실버 룩을 예측했지만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골드 룩과 같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광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지를 이용한 글리터리 룩과 같은 광택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광택부여 방법도 실켓, 친즈, 글레이즈 등 강한 금속성 광택보다는 은은한 광택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소재의 고급화와 맞물려 실크 사용의 증가와 극세사를 이용한 실키 룩을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레이온의 사용증가는 매트하고 러스틱한 소재와 믹스하여 레이온이 가지고 있는 광택을 보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메탈릭 소재는 60-70년대 파코라반과 같이 직접 메탈을 이용한다든지 금속성이 강한 광택보다는 실켓가공이나 캘린더링과 같은 가벼운 가공이나, 각종 수지를 이용한 표면광택을 처리하여 기능성과 함께 우아하고 은은한 광택을 함께

가지는 소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지의 기능성면에서도 통기성과 투습성이 살아있는 “숨쉬는 수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위생적인 면에서도 많이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택소재는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모든 디자이너들의 빼놓을 수 없는 테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기대 방향은 실용적인 패션소재로는 물론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의 쾌적한 느낌, 원활한 통기·투습성, 경량감 그리고 natural한 성능의 부여와 easy care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20세기는 전환의 시기였고, 복식사적인 면에서도 현대복식의 형태가 정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광택소재는 실크를 이용하여 표면 특성을 달리한 새틴, 모아레, 브로케이드, 벨벳, 페일, 타프타, 다마스크 등이 사용되었으며, 실크 외에 다른 소재는 엠파이어 스타일이 유행했던 시기에 머슬린 드레스 위에 착용되었던 캐시미어 솔, 1820년경에 모헤어 오토만이 새틴 트리밍 장식과 함께 사용하는 등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인조섬유의 등장으로 권위와 장식의 상징으로 이용되었던 광택소재를 전위성과 우주시대나 사이버 시대와 같은 미래테마의 소재로 이용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20세기 이후 시대에 따른 광택소재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세기에 들어와서 1938년 합성섬유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실크섬유를 이용하여 표면감만 달리한 새틴, 샤뮤즈, 거즈, 다마스크, 벨벳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실크 이외의 섬유로는 캐시미어, 모헤어, 레이온 등에 불과하였다.
2. 합성섬유의 생산이 본격화된 60년대는 다양한 신합섬의 실험적인 디자인에 합성섬유의 매끈한 표면에서 발산하는 광택소재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비닐, 라텍스, 천연피혁, 합성피혁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금속 리벳처럼 금속을 직접 하나의 오브제로 도입하였으며, 형광염료의 출현은 빛을 이용한 또 다른 광택소재를 이용한 방법이 되었다.
3.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광택소재는 1988년 신소재의 본격적인 개발에 힘입어 하이테크 감각을 갖춘 고기능 광택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변형 단면 소재의 금속성 광택, 알루미늄 spattering과 같은 표면 코팅가공 소재들이 스페이스 룩과 같은 미래테마의 이미지에 많이 표현되었다.
4. 21세기에 들어와서 실버 메탈릭 소재보다는 골드 메탈릭 소재들이 선호되고 있으며, 우아하고 온화하며 자연스러운 광택을 주는 실켓·친즈가공 소재, 부드러운 표면

의 새틴 소재, 반투명의 광택감 있는 테크니컬 소재, 플라스틱 촉감의 실키가공 소재, 광택나는 표면과 매트한 이면의 이중직과 실리콘 코팅을 통한 Paper Touch감을 부여하는 소재 등 다양한 수지 코팅들이 이용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이은영 외 2명, 패션, 교학연구사, 1999.
- 2) 가재창 편저, 패션디자이너 199 -Paco Rabanne-, 도서출판 정은, 1995.
- 3) <http://www.sfi.co.kr/fdb/tdb-ency.html>4) 김종복, Fashion Sense Search, 도서출판 시대, 1997.
- 5) Sarah E. Braddock, Marie O' mahony, Techno Textile, Italy, 1998, pp. 72-89.
- 6) Alexander MaQueen, Stainless steel splattered Synthetic, '99 S/S colletion.
- 7) Mark Eisen, Metallic vest, '96 S/S.
- 8) 삼성패션 연구소 (<http://www.sfi.co.kr>)
- 9) <http://www.kent.edu/museum>
- 10) 김창준,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 라사라(주), 1992, pp. 110-115
- 11) 오희성, 박화순, 의상디자인, 경춘사, 1994, pp. 224-225.
- 12) 이은영 외 2인, 우리나라 사이버 패션에 대한 연구-1994년 이후에 나타난 트렌드 중에서-,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11, 1998.
- 13) 조현미, 패션투데이, 1994, 11, pp. 38-39.
- 14) <http://www.firstview.com>
- 15) <http://www.fashionbiz.co.kr>
- 16) <http://www.fashionpia.co.kr>
- 17) <http://www.skchemical.co.kr/>
- 18) J.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Little Brown & Company, 1980.
- 19)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luster material - after 20th century-

Chun-Eui, Baik*

*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of luster material after the twentieth century. This study was conducted by means of designer collection, journal of fashion, museum data, fabric exhibition and Internet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Before the synthetic fiber period, the luster materials were used satin, chamuse, gauze, damask brocade and velvet, except cashmere, mohair and rayon. They are made from silk by the way of giving difference surface property.

But since 1960s, it has used not only synthetic fiber with smooth surface but also vinyl, latex, natural leather, synthetic leather and metal. Luster material recently has a tendency to natural and soft shiny, example silk finish, chintz finish, silico coating finish with paper touch feel and so forth